



4월 아름다운 재단 헌책방 용봉점에서 열린 화분 나누기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왼쪽)과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판매될 박유자 작가의 '해바라기'.

나눔이 아름다운 작은 헌책방

아름다운가게 용봉점 10주년... 15일 기념식·음악회
미래에셋·사학연금공단·광주일보, 기증도서나눔전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책꽂이에 내다놓으면 개인 골방에서 죽어가던 책들이 생기를 얻고 날개를 달게 될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들의 책꽂이를 채우고, '내' 책꽂이는 비우자고 이야기할 때가 된 듯해요. 운동 내뿜 챙기자는 세상 이기기도 하고.' (이철수 판화 글 중)
지역의 문화사랑방으로, 책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공간으로 자리잡은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 광주용봉점(광주시 북구 설죽로 202 화인빌딩 4층)이 10주년을 맞았다.
헌책방은 지난 2009년 화인테크의 공간기증과 미래에셋 후원, 광주 시민들의 책주주 캠페인으로 문을 열었다.

지금까지 지역민들에게서 기증받은 도서와 음반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기업과 공정무역 제품, 재사용디자인 제품 등을 함께 판매해 왔으며 수익금을 국내의 소외된 이웃들과 나눴다. 또 책나눔캠페인, 책방음악회, 리본 공예, 쿠키만들기, 구연동화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0년간 헌책방에는 많은 이들의 나눔이 이어졌다. 9만2100명이 모두 56만 6400여점을 기증했고 총 매출액은 9억 8000여만원이었다. 이는 5만 980그루의 소나무를 심고 14만1611kg의 탄소배출량 감소 효과다. 나눔 금액은 11억 7000만원이었다.
10주년을 맞아 15일 오후 2시 10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지속적으로 책 기

부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미래에셋, 사학연금관리공단, 광주일보 도서나눔전이 진행되고 CD, LP, 고서 특별판매전도 열린다. 또 '해바라기'로 유명한 서양화가 박유자 작가가 기부한 그림 판매전이 열리며 최숙영 작가의 재능 기부로 캘리그라피 행사도 펼친다.
오후 4시부터는 기념 음악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열린다. 강혜숙 활동전사의 시낭송을 시작으로 정경옥의 색소폰 연주, 강용주와 한종면이 '아 이야기', '인생길', '남만에 대하여', '나의 사랑 그대 곁으로' 등을 부른다. 예술감독과 피아노는 김현옥 작곡가가 맡았다.
그밖에 책방 운영위원, 활동전사, 기부단체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고객들과 다과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판매행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다. 문의 062-514-897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무등미술대전, 한국화 손승연·서양화 김계영 대상

1459점 출품, 901점 입상

제35회 무등미술대전에서 손승연(충남 공주시)작가의 작품 '遊-유'가 한국화 부문 대상을, 김계영(전북 군산시)작가의 '기억의 잔상'이 서양화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901점이 입상했다.
대회를 주최하는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회장 박재순)는 13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제35회 무등미술대전 심사를 갖고 8개 부문 8개 작품을 대상으로, 9개 부문 24개 작품을 우수작으로 선정하는 등 입상작을 확정했다. 또 특선 297 점, 입선 572점을 선정했으며 올해 출품수가 줄어든 판화 부문은 유일하게 대상작을 뽑지 않았다.
부문별 대상 수상자는 ▲문인화=주영선(광주시 신창동) '수세미' ▲수채화=정윤주(광주시 양산동) '그대는 주먹밥이었지' ▲조각=김태양(광주시 오치동) '해마' ▲공예=김은경(광주시 첨단내촌로) '어머니께 쓴 편지' ▲서예=정영숙(광주시 소촌동) '이거군화종자군' ▲사진=박영술(전북 전주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등이다.
부문별 대상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상장, 각 부문 우수상에게는 상금 50만원과 상장이 수여된다. 올해 무등미술대전에는 전국적으로 공모전 출

품작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역대 대회 중 가장 많은 작품이 출품돼 무등미술대전의 위상을 실감케했다. 올해 출품작 수는 1459점으로 지난해보다 127점이 늘어났으며 그 중 공예(55점), 사진(45점) 한국화(25점), 문인화(19점)의 증가가 눈에 띄었다. 또 외부지역 작품수가 51%를 차지해 무등미술대전이 전국대회의 면모를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무등미술대전은 지방 미술문화를 향상·발전시키고 전국 미술인의 등용문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 1985년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총 3만8967점이 출품돼 1만9583점의 입상작을 선정했다. 특히 대상 수상작품 235점은 시상작으로 매입, 지역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강규성 충남대 교수는 "이번 공모전 출품작은 작년에 비해 양적·질적 발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었고 전통과 현대 그리고 다양한 소재와 기법으로 작업한 작품들이 인상했다"며 "무등미술대전이 앞으로도 역량있는 공모전으로 위상을 높이고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 시상식은 오는 28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리며 전시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다. 문의 062-233-192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정윤주 작 '그대는 주먹밥이었지'

"누리카드 문화생활 즐겨요" 5월말까지 6만여명 발급

"문화누리카드 발급급 문화생활 즐기세요."
광주문화재단이 문화 소외계층 6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말까지 6만1000여 명이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3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8만원을 지원하며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분야 전용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가맹업종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케이블TV 요금 결제에 이어 올해는 수영·헬스·요가 등의 월회원권, VR체험, 방탈출체험, 실내레포츠, 광주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도 가능하다. 또한 광주패밀리랜드(놀이공원), 롤러홀릭(롤러장), 스튜디오 예감(사진관) 등 일부 가맹점에서는 문화누리카드 결제 시 할인혜택도 받는다.
문화누리카드는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발급 및 재충전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화(ARS) 재충전 제도를 통해 보다 쉽게 지원금을 재충전할 수 있다. 문의 062-670-7914.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악과 현대음악... 블루스와 판소리

15일 '풍류달빛공연' 무등산생태탐방원
16일 '지음, 그 해' 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이번 주말, 전통과 현대 음악이 만나는 독특한 국악 무대들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제3회 풍류달빛공연이 오는 15일 오후 7시 무등산생태탐방원에서 열린다. 김나니 국악인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공연은 '대금이 누나'와 '이희문 컴퍼니'가 출연한다.
'대금이 누나(김지현·사진)'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로, 1만9000여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대금 연주자다. 이날 대금 독주곡 '청송곡', '방탄소년단'의 'FAKE LOVE', 이선희의 '인연', 영화 '타이타닉' 삽입곡 'My Heart Will Go On' 등을 연주한다.
'이희문컴퍼니'는 아들 이희문 소리꾼과 어머니 고주랑 명창이 이끄는 단체로, 이희문컴퍼니 소속인 농놈, 먼데이씨스터즈, 속씨스터즈가 함께 출연한다. 레퍼토리는 '긴 아리랑', '한 오백년', '강원

도 아리랑', '오봉산타령', '한강수타령', '신고산타령', '궁초당기' '이팔청춘가' 등이다. 무료 공연. 문의 062-232-2152.
세련된 블루스 음악과 친숙한 국악 소리가 만나는 퓨전 국악 무대도 마련된다.
고영열 밴드와 김산옥 국악인이 16일 오후 3시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공연 '지음, 그 해'를 연다.
광주문화재단 일요상설공연으로 개최되는 이날 공연은 고영열(피아노·소리)과 이재하(베이스), 최승환(퍼커션)이 연주하고 김산옥 소리꾼이 사회와 소리를 맡는다.
레퍼토리는 경기민요 '풍년가', 창곡 '춘향전' 중 '단오놀이', '사랑가', '이별가', 신민요 '애수의 가을밤', 판소리 심청가 중 '방아타령', '벚노래' 등이다. 고영열은 블루스 음악에 전통 판소리 가창을



역은 퓨전 국악 '피아노 병창'을 선보이는 음악인으로 2016년 21C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동상을 수상하고 지난해 예능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과 '판소리' 등에 출연했다. 김산옥은 박동진 전국 국악경연대회 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창작국악그룹 '다온소리' 대표로서 공연, 방송 등에서 활동 중이다. 무료 공연. 문의 062-232-1502.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기원 **객실 25% 할인 판매**



행사기간 **2019년 7월 10일 ~ 28일**
예약/문의 **062-228-8000 / 221-4114**

www.shinyangparkhotel.com